



3월의 사양관리

임 병균

1. 이달의 날씨

이달 상순에는 몽고지방에 위치하여 있는 대륙성 고기압이 가끔 장출하여 약간 기온이 내려가기는 하나 곧 해소되어 진연 겨울철 기압 배치는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중순 이후부터는 화남지방으로부터 옮겨오는

〈표 1〉 3월의 기온(°C)과 상관습도(%)

지	역	평균기온	평 최 고기온	평 최 저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기 온 의 최 대 교 차	평 상 관 습 도
춘	천	3.4	9.7	-3.0	12.6	-5.4	14.3	—
강	능	4.7	9.6	0.4	20.4	-4.2	13.0	61
서	울	3.6	8.7	-1.1	14.0	-3.4	14.2	64
수	원	3.5	8.6	-1.8	14.8	-4.1	11.2	—
대	구	5.7	11.6	0.3	19.6	-2.0	17.3	58
진	주	5.0	10.9	-0.1	19.2	-3.0	18.9	71
광	주	5.7	11.7	0.4	18.2	-2.0	16.1	71
부	산	7.3	12.1	3.5	21.2	-0.6	13.4	59
계	주	8.0	11.9	4.4	22.2	1.3	16.9	78

2. 닭의 건강관리

3월은 기후의 변화가 심한데다가 계절적으로 보아 무리를 해서라도 산란을 많이 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기대되는 산란을 제대로 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닭이 최약하게 되어 경제적인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닭의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대체로 볼 때 아주 추운 겨울철에는 큰 화가 없이 성적을 올리다가 날씨가 좀 풀리는 이달, 즉 환절기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계사일수록 심한 것 같다.

① 온화한 주간에는 창문을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를 시켜서 계사내에 차있는 습하고 탁한 공기와 밖의 신선하고 건조한 공기를 교체하여 주

이동성 고기압이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온화한 고기압이 장출부와 합세하여 지나가기 때문에 완연한 봄 날씨를 이루게 되어 하천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남단으로부터 즐거운 화신(花信)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한편 이달에는 저기압과 기압골의 통과가 자주 있기 때문에 흐린 날씨가 계속되기도 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비·눈·진눈개비가 오락가락하여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 달이기도 하다. 이달의 서울지방 평균 기온은 3.6°C 이고 평균 최고기온 8.7°C, 평균 최저기온 -1.1°C 이나 최저기온이 -3.4°C 까지 내려가서 기온의 최대 교차가 14.2°C 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계사내의 환경 온도를 맞추기에 매우 힘이 든다(표 1).

고기온이 내려가는 야간에는 보온에 힘쓴다. 가끔 보면 아침 일찍 모이를 주기 위하여 계사에 들어설 때 공기가 탁하다고 하여 모이도 주기 전에 창문을 모두 여는 일이 있는데 이런 점은 특히 삼가해야 할 것이다. 하루 가운데 해돋이 직전이 가장 기온이 낮다는 것을 잊기 때문이다.

② 심한 바람이 부는 날은 주간에라도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창문을 거의 폐쇄하고 반대편만의 창문을 개방한다. 외기 온도가 별로 낮지 않은 때라도 심한 바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풍속 1m(초속)마다 체감온도(體感溫度, 한란계의 표시온도와는 다르다)를 약 1°C 씩 낮추어 주기 때문이다. 계사내의 풍속은 1m(초속)를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③ 산란계의 사료는 산란성에 따라 단백질이나 카로리를 높여준은 물론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

은 영양성분도 그 첨가량을 증가시켜 줄 것이며 수시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달은 모든 동물의 번식 계절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서도 무리해서라도 산란을 하려는 본능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내의 영양분을 고려하지 않고 산란율이 좋아지는 것만 즐기다가 큰 코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또한 기상조건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여 일반 산란사료에 비타민·무기물·항생제…… 등을 보강시킨 스트레스기 사료를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④ 여러가지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해소시켜 줄 것은 물론 항생제 등을 투여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⑤ 뉴캐슬 예방접종은 체내 면역(역가)이 완성소실되기 전에 재접종(매 3개월마다 접종하는 것이 좋다)한다. 계두 예방접종은 단 한번으로 일생 면역이 되기 때문에 어린시기(늦어도 3~4주령)에 실시해 두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며 그 외라도 이달에 미리 접종해 두면 5월에 가서 서둘지 않더라도 좋을 것이다.

생독백신(B₁, 계두 예방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예방접종 전후 2일간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다.

⑥ 계사 주위는 겨울동안 치우지 못했던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양젯물이나 양젯물 석회 유제를 살포하여 모든 잡균을 죽이고 그 번식을 억제시킨다.

3. 취소계(就巢鷄)에 대한 대책

백색 레그혼 계통의 채란계는 취소성이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나 백색 레그혼종과 겸용종(뉴헬프샤·푸리머스룩·로드 아일랜드 레드 등)과의 품종간 교잡종은 약간의 취소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최근 채란계의 육종에 있어서 취소성이 산란성을 별로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잘 개량된 채란용 전용계라도 계사의 환경조건에 따라 취소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설령 취소성이 산란성과 관련이 적다 해도 지나친 취소성이나 또는 장기간에 걸친 취소성계는 연간 산란수를 적게 할 수 있고, 평면 사육시

다른 닭이 낳은 계란을 산란상자에서 오랫동안 품고 있으므로 하여 난질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

항상 채란계의 케이지나 빠다리 사육에 있어서 는 취소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나, 산란상자를 마련해 준 평면 사육시에는 3월로 접어들면 서부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취소계가 점점 그 수를 더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미연의 방지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계사내의 통풍 및 환기를 잘 시킨다.

② 밀사를 피한다.

③ 계사내의 기온 상승을 억제한다.

④ 집란(集卵)을 자주 한다.

⑤ 초생추를 보이게 하거나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⑥ 취소계가 발견되면 즉시 꺼내어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철제 케이지에 격리 수용시킨다.

⑦ 격리된 취소계는 2~3일간 물만 먹게 하고 절식시키는 것이 좋다.

4. 부리 자르기(단취)와 벼슬 다듬기

채란용이거나 부로일터용이거나 초생추 때 부리 자르기를 하는 것은 필수작업으로 되어 있다. 부화장에서는 분양하는 초생추를 대개 부리를 잘라서 내보내지만 만일 부리 자르기를 하지 않은 병아리라면 도착 후 잠시 안정시키고 곧 부리를 자르도록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칼날이 너무 가열되지 않도록 할 것과 중추 때 두번째 부리 자르기를 할 것을 전제로 너무 깊게 자르지 말 것이다.

부로일터용 초생추는 벼슬 다듬기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나, 특히 케이지나 빠다리에 사육할 채란용 초생추는 다듬는 것이 좋다.

벼슬 다듬기도 부화장에서의 작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부탁하면 벼슬 다듬은 병아리를 분양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병아리는 도착 후 부리 자르기 작업과 함께 하면 된다. 이때 여자들의 손톱 손질에 쓰는 메니큐 가위(아주 작은 반달형)를 이용하면 쉽게 다듬을 수 있다. 다만 벼슬의 근원을 뭉땅 들어내야 하는데, 만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남게 되면 그것이 크게 자라서 후에 불품 없이 된다.